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본격 훈련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다. 한국은 6일 이곳에서 아이티와 평가전을 갖는다.

인천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un

■ 홍명보호 아이티전 관전포인트

‘구자철 시프트’ 골로 연결될까



한국이 6일 오후 8시 인천축구전용 경기장에서 아이티(FIFA랭킹 74위)와 평가전을 갖는다. 한국은 9월 A매치부터 유럽파를 불러들였다. 4경기 1골에 그친 빈약한 득점력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이티전은 홍명보호의 조직력을 점검하기 위한 좋은 상대다. 크로아티아전(10일)을 앞두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자철 시프트’ 최상의 공격조합 될까

홍명보 감독은 ‘구자철 시프트’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최전방 공격수로 다양한 활용이 점쳐진다. 4일 훈련에서 시프트가 가동됐다. 구자철은 전방과 후반 다른 포지션에서 공격력을 뽐냈다. 전반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후반에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공격 물고를 트고 직접 해결까지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다. 홍 감독도 일찌감치 쓰임새를 못 박았다. 명단 발표 때 구자철을 공격수로 발탁했다. 홍 감독은 “대표팀에서 구자철의 공격적인 장점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자철의 활용 방안에 따라 공격조합이 달라진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면 지동원이 원 톱에 서고 측면에 김보경과 이청용이 호흡을 맞춘다. 반면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되면 김보경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동한다. 측면에는 손흥민(윤일록)과 이청용이 활발한 움직임을 펼칠 수 있다.

●‘전담키커’ 김보경, 하대성

세트피스는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홍명보호가 빈곤한 득점력을 드러낸 것도 세트피스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다. 대표팀은 전담키커가 없었다. 염기훈(경향)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가 원발로, 박종우(부산) 이승기(전북)가 오르발로 찾으나 모두 허사였다. 이번엔 다르다. 김보경과 하대성이 전담키커를 맡았다. 4일 세트피스 훈련에서 날카로운 킥을 뽐내며 동료들에게 공을 뿌렸다. 세트피스가 대표팀의 새로운 득점원으로 통할지 관심을 끈다. 인천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sangjun47

■ 홍명보감독 출사표

“점이 연결돼 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외파 선수들이 새롭게 들어왔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브라질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지 잘 알고 있다. 저조한 득점력이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줄까봐 걱정이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소속팀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득점하고 있다. 팬들의 생각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점이 연결돼 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정력을 조금 더 완숙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측면 공격수들이 좋은 타이밍에 나와 공을 받고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 아이티는 좁은 공간에서 역습하는 스피드가 좋다. 선수들에게 콤팩트한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 연고 ‘제2구단’ 창단 힘찬 첫발

정몽규회장-박원순시장 7월 회동

강남권 아우르는 ‘잠실 연고팀’ 구상
스페인 바르셀로나식 협동조합 모델
서울시, 조합원 5만명 규모 창단 준비

본지 단독

잠실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서울 연고 프로축구팀 탄생. FC서울과 서울시민 프로축구단(가칭)의 더비매치.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한국축구의 숙원사업인 제2 서울 연고 프로팀 창단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가 손을 잡았다.

스포츠동아 취재결과 정몽규(51) 대한축구협회장과 박원순(57) 서울시장이 7월 초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협회 안기현 전무이사과 서울시 기동민 정부부시장도 참석했다. 정 회장과 박 시장은 강남권 프로팀 창단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작년 11월 유럽 순방길에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박 시장은 서울 시민축구단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5만명의 조합원으로 창단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과 박 시장의 회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잠실 연고 프로팀 창단은 K리그의 염원이다. 서울은 사람과 돈이 몰려 있는 국

내 프로스포츠 최대 시장이다. 하지만 프로축구 22개 팀(1부 K리그 클래식 14팀, 2부 챌린지 8팀) 중 서울 연고는 FC서울 단 한 팀뿐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런던에만 14개의 프로팀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 회장은 오래 전부터 서울 프로팀 창단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2011년 프로축구연맹 총재 시절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 구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여기서 팬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연맹 사무총장이었던 안기현 협회 전무이사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의사를 타진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정 회장은 협회장 취임 직후인 올 4월에도 “잠실을 연고로 서울에 축구팀이 1개 더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직접 서울시장이 나서 창단 의사를 피력하고 축구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프로팀 창단을 위한 첫 삽을 뜬 셈이다.

●창단검토 배경

박 시장이 작년 11월 바르셀로나, 볼로냐(이탈리아), 파리(프랑스) 등 3개 도시를 돌며 현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현장을 살피고 온 게 촉매가 됐다. 특히 FC바르셀로나가 박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르셀로나는 20만명 가까운 조합원으로 운영된다. 조합원이 직접 클럽 회장을 뽑고, 조합원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조사하는 옴부즈맨도 있다. 박 시

장은 당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 제2의 프로축구단을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쳐 축구계를 들뜨게 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축구단 창단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정 회장과 박 시장의 정책 회동이 이뤄졌다. 기동민 부시장은 “프로축구의 서울 연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협동조합 형태의 축구단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박 시장과 정 회장이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왜 잠실인가

잠실 연고의 팀이 창단되면 강남권 시민들을 품을 수 있다. FC서울이 강북 지역을 대표한다면 잠실 연고팀은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6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잠실종합운동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15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마친 뒤 7월 동아시아 컵 한일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안기현 전무는 “교통 접근성, 주차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게 잠실운동장의 가장 큰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

정식 창단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가 예상한 만큼 조합원들을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조합원의 가입비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탄력을 받으므로 스포서가 붙어 다시 조합원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이상적이지만 반대의 경우 자금줄이 묶여 빼

겨거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창단 초반에는 시 예산이 일부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경우 시민 여론과 시 의회 통과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잠실종합운동장도 조금 더 손봐야 한다. 관중석과 그라운드 사이가 너무 멀고 관전 시야도 불편하다. 가변좌석을 운영하는 등의 묘수가 필요하다.

앞으로 서울시는 프로연맹과 긴밀하게 공조해나가기 한다. 안 전무는 “프로팀 창단에 대해 협회도 당연히 적극 돕겠지만 연맹이 주도가는 게 맞다. 서울시도 앞으로는 연맹과 의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시즌 참가 여부에 대해 기 부시장은 “그럴 일은 없다. 졸속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 지금은 실무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과정이다. 길게 보고 있다”고 선을 그쳤다.

윤재석 기자 sport@donga.com 트위터@Bergkamp08

●협동조합이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원 모두의 권익을 추구한다. 의사결정이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이뤄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스포츠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 교육, 연구개발 등 120개의 협동조합 복합체)과 FC바르셀로나 축구단, 미국의 샌키스트(6천여명의 오렌지 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와 AP통신, 한국의 서울우유 등이 대표적이다.

전봉산 1,200고지에서 나타난 등근잎 황제 천종산삼...



황제 천종산삼 출현!

113년전 중 4부(사신), 길장가 8천 500만원, 등근잎 황제산삼을 발견한 조두환씨(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23일 등산산악회에서 경원도 정봉산 산행중 정봉산(2002고지)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 계속으로 뛰어가 숲속을 도는 도중 물줄에 숨어있는 오가치처럼 생긴 다섯잎이 보며 오가치에는 빨간줄이 있는데, 허마 굴굴고 신기하여 나뭇가지로 조심스레 손을 해쳐 채취하여보니, 산삼뿌리가 나타나 깜짝 놀랐다. 조두환씨는 산삼을 채취한 후 등산산악회 회원들에게 뛰어가 보여주었더니 정말 산삼이라며, 빨리 하산하여 감정을 받아보라 해서 집에 와서 산삼감정을 위해 인터넷 각종 방송차로근거를 찾아보니 산삼감정 명인인 김익주씨를 알게 되어 감정을 받게되었다. 조두환씨는 지난 저녁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황금빛 황소를 길로 끌고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다음날 그는 등근잎 황제천종산삼을 경원도 정봉산(2002고지)에서 등근잎 황제천종산삼 4뿌리를 발견하는 기적을 낳았다. 산삼감정을 맡은 산삼감정의 명인으로 더욱 유명한 김익주(김익주 산삼 갤러리 대표)는 “이번에 발견된 등근잎 황제천종산삼은 무게 (30g)에 이르는 희귀종에 전체적으로 짙은 황색을 띠며, 매우 진기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감정을 하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등근잎 황제천종산삼의 특징은 일반천종산삼이 지니고 있는 사근보다 무려 2.5배가 높아 단연 황제천종산삼으로 표창하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두번이었는데 이번이 세번째로 발견됐다. 크기가 25센치 미만이고, 잎의 끝이 보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삼 잎이 둥근게 특징이며, 정열에 나을 만큼 매우 귀하여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산삼을 발견한 조두환씨는 “처음으로 발견하는 신비한 체험의 등근잎 황제 천종산삼(4뿌리)을 보고 믿을 일었고, 순간 어려운 정황을 살피면서라도 남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싶었는데, 삼의 고개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고 발견 당시의 감격을 전했다. 그는 “산은 마음을 비우고 산행하는 노력의 결과만큼 되돌려주는 신령스런물이 있는 것 같다”면서, 발견한 산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발견한 귀한 등근잎 천종산삼인 만큼 꼭 필요한 분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익주 산삼감정명인 약력

- ▶ 심마니로 28세 / 야생화 및 동호회 활동
- ▶ 인천세과 중국산삼 일수를 감지하여 참여
- ▶ 산삼산양의 생애와 및 과학적 비교분석 논문 발표
- ▶ 2011 스포츠서울에 산행한 기업비즈니스대상 수상
- ▶ 2011 일간스포츠 소비자경영대상 수상
- ▶ 2012 뉴스캐피탈 한국을 떠나는 혁신비트 선정
- ▶ 2010년 한국 최연소 산삼감정명인 및 신지서인 선정
- ▶ [11]한국 전통 식문화 탐구대회 및 서울지정
- ▶ [11]한국 산삼감정명인 감정명인 및 상임이사
- ▶ [11]대한민국 전통식품문화학회 상임이사
- ▶ KBS아침마당 VJ로 출연 EBS9전국방송(MBC다큐

서울 강서구 방화동 580-140번지 김익주 산삼갤러리 전화: 02-2662-3380 / 010-2330-1544